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감사의 찬양시

(시편 66:1-2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
납된 것은 기도 자체에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물리
치지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65편의 마지막 절과 66편의 첫 두 절을 보면 시편 66편이 왜 65편 다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65:13은 초장과 골짜기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고 했고, 66편은 온 땅이 즐거운 노래를 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만물이 오히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인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1. 두 개의 중복된 말씀

본 시에는 두 개의 중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땅으로 찬양하라고 하며, 나아가서는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양에 참여하는 이들이 온 땅과 유대인과 시인 개인으로 점점 좁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와 보라고 합니다(5절). 다시 말해서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찬양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2.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상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매우 천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편 65-66편에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백성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백성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6절)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건넌게 하신 하나님, 여기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위하신가를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태풍이나 큰 자연 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지은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자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는 극히 드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 받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슬픔이나 기쁨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기쁨 때 사람들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찬송은 단순한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감성에서 나오는 노래의 초점은 자신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음악은 우리의 경험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감사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찬양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말하는 이는 받는 이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의 표현에는 자신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의식화된 메마른 종교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8절).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토록 초청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많은 복이 임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감사절에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 불로 은을 연단하시듯 그물에 몰아넣기도 하고 불과 물속을 지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10-12절). 그러나 이러한 연단은 풍성한 복지로 들어가는 지름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라

“너희들은 다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16절).

시인은 갑자기 1인칭 단수로 바뀌 개인적으로 입은 은혜를 간증하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시인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13절). 번제물은 화목제와 달리 완전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물을 들고 가겠다는 것은 시인이 환난 날에 약속한 것이고 시인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시인은 지난날 막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자기 기도를 열납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된 것은 기도 자체에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간증을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일평생 지나 깨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경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차 없는 주일 캠페인

10월7일(주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비롯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망가져가는 지구의 아픔을 덜고자 '차 없는 주일'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동차 1,600만대 시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만물이 그렇듯이 공기도 그 안에 스스로 오염된 질서를 담고 있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 0.035%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한가지 성분도 더 하거나 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하루에 숨쉬는 공기는 15Kg이다. 이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기를 선물로 받고도 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지구온

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다. 공기오염으로 사막은 더욱 넓어지고, 일부 지방은 강수량이 늘어나 홍수를 일으킨다. 오존층의 약화로 피부암, 면역력 감퇴 등 인체에 해를 끼친다. 산성비 속의 황산과 질산 성분을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매연, 화학물질, 중금속, 방사성물질로 사람과 자연에 큰 피해를 준다.

우리교회는 10월7일(주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실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이 운동에 동참한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하여 내가 조금 불편하면 지구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린다.

다락방 개학 특강

9월 5일(수) 1, 2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 여름 무더위 기간에 잠시 방학을 하였던 다락방 모임이 다시 시작된다.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다락방 개학(9월 7일, 금)을 맞아 특강을 실시하여 방학기간 동안 느슨해진 다락방 식구들의 영적 긴장감을 고취시키며 새로운 각오로 하반기 다락방 모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락방 개학 특강은 9월 5일(수) 1,2부 예배 후 1층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서며 '다락방 제도의 성경적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모든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 교구일꾼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2007년 하반기 다락방이 은혜 중에 원활하게 움직여지기를 바란다.

아파트 전도 특별 세미나

9월4일(화)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강남노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전도 특별 세미나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 총회전도학교 특별강사)가 강사로 서 '아파트전도 방법론'을 주제로 강의한다.

서울강남노회 소속 모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이 세미나에 우리교회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여 전도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케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초청 공연

12월24일(월) 오후7시 성탄전야예배 시간 중에

굿미션 네트워크 아프리카 케냐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이 내한하여 우리교회에서 성탄전야예배 시간에 합창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라니 합창단은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한국공연에는 35명의 어린이와 15명의 임원, 총 50명이라고 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람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케냐 대통령궁에서 공연

2007후반기 열린프로그램 오늘부터 접수·개강 10월7일을 차 없는 주일로 선포

제9기 결혼예비학교가 오늘 12시30분 903호에서 개강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2일(주) 18기 찬양대양성반 개강으로 이어지며 9월3일(월)부터 2007년 열린프로그램이 일제히 개강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열린프로그램 신청접수를 사무국에서 시작한다. 등록비는 과목당 10,000원이다.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여가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한다.

특히 2008년에 찬양대원으로, 혹은 각 교회학교 교사로, 교구일꾼으로 봉사하려고 기도하며 준비 중인 성도들은 반드시 해당 양성반을 수료하여야만 임명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봉사 중인 찬양대원, 교사, 교구일꾼 그리고 내년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번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료하기 바란다.

교회당 외부 벽면 유리창 청소 마쳐

우리교회는 지난 20일(월) 교회당 외부 벽면과 유리창에 낀 먼지와 오물을 청소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내 가정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당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아름답게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

8월 2차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8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 필사 1회 : (12교구) 정희순 권사
- 7독 : (12교구) 김경철 장로
- 5독 : (8교구) 김인식 권사
- 3독 : (11교구) 오치열 집사 (14교구) 김종자 권사
- 2독 : (2교구) 박희서 집사 (6교구) 허인숙 권사 (대학부) 박수진
- 1독 : (1교구) : 강승웅 집사 박광식 집사 박현영 집사 서경애 권사 유성인 집사 이인숙 권사 조영자 권사 최규초 집사 최명남 집사 (3교구) : 송동선 권사 정찬주 성도 (5교구) : 주경자 권사 최학인 장로 (6교구) : 이난화 집사 (8교구) : 서문석 장로 유병욱 권사 (9교구) : 김홍두 집사 이관규 장로 이영희 권사 장명순 권사 한종우 집사 (10교구) : 박연순 권사 임훈규 장로 (11교구) : 김선미 권사 김해수 성도 이옥희 권사 (12교구) 오광환 집사 (13교구) : 김시영 성도 김희순 집사 배은경 성도 신기숙 권사 안경옥 집사 윤혜련 집사 이인보 집사

만민에게 전도 - 말라위선교보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밭

김용진 선교사 (아프리카 말라위)

존경하는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말라위에서 진행 중인 1차 농장교도소 예정지로 선정된 말라위 남부 마칸디에 스텝하우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8월 하순에는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부지로 우리가 받은 땅(약 35만 평)보다 약간 더 큰 땅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그 지역 주장이 전해오면서 부락주민을 위한 진료소를 하나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교도소 주변의 주민 1500여명(초등학생 350명), 재소자



말라위 현장에서

400명, 교도관과 가족까지 모두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섬기게 되겠기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미국 의료선교기관인 Diller Foundation의 회장 Dr. Conway와 만나 진료소에 들어갈 모든 의료장비와 의약품, 소모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0월경에 툴리도 지역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40ft짜리 대형컨테이너 에 옷, 가구, 서적, 영상물과 간단한 농기계 및 의료장비들을 보낼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마칸디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농장과 축사 등지에서 하루 6시간 한 달에 150시간 노동을 하여 나온 수확물은 병원의 환자나 고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고 그들 400명에게는 한 달

에 \$10씩의 상여금을 제공하는 400명의 독지가를 Toledo Blade라는 이 지역 대표적 일간지의 노력으로 모집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매월 월급과 같이 나오는 \$1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은 한국으로 치자면 약 30만 원 정도의 화폐가치로, 이곳에서는 제법 큰 돈입니다. 이를 복역기간 중 재소자 가족들에게 매월 지급하면 이들이 형을 마치고 귀가 했을 때 원활하게 가정에서 복귀하고 재범률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미국에서의 안정된 목회를 버리고 말라위로 간다고 걱정을 하면서 말할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선배 기독교인들이 뿌려놓은 오물을 제거하고 주의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산과 바다를 넘는 발이 되게 하옵

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교도소 사역은 과거 식민지 정책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서구 기독교가 저야할 응분의 책임이지, 결코 착한 양심에서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인도주의적 동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다분히 서구사회의 도움을 받은 만큼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아프리카 교도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작금에 들어 백인을 경원시하는 풍조가 아프리카에 만연되고 있고 서구 선교사들이 대거 엑소더스하고 있기에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그 어두운 대륙을 새롭게 하는 일을 차분히 한다면,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발상이 저로 하여금 쟁기를 들고 앞을 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제게 늘 당부하시는 말씀과 같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봄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8월 하순에 말라위에 들어가 정부당국과 양해각서 및 계약서 등을 체결하는 등의 제반 준비 작업을 마치는 대로 10월1일을 프로젝트 개시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교도소가 말라위에 세 군데 더 세워지고 이와 거의 동시에 인근나라로 확산되어 최소한 PFI(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에 소속된 아프리카 31개국에 나라마다 서너 곳에 세워질 것에 대비해서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것을 기록에 남겨 누구든지 replication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측에서도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일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널리 알려 주셔서 우리 한국이 지구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입은 은혜 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대신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그 어두운 대륙을 새롭게 하는 일을 차분히 한다면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클 것입니다.

천국시민양성 - 목회자세미나 초대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해...

최광성집사 (목회자세미나 총무)

한 학기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32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9월 3일 웨스트 민스터 홀에서 열립니다.

지난 1992년에 개원한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은 16년동안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2학기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1교시는 '마태복음 연구'로 이종운 목사님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이해를 넓히게 되며 2교시는 '한국 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소견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근각처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됨으로 철저한 준비와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함께 봉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천국시민양성 - 마리아 학교 초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김실전도사(유아부지도)

눈만 뜨면 변화하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유월절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잃고 근심하여 찾던 마리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마음에 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려는 위임목사님의 기도로 개설되었습니다.

유아기는 가정에서 조금 더 넓은 사회기관으로 교육의 환경을 넓혀야 할 시기이며,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첫발을 내딛는 아이에게 중요한 교사인 엄마들과 함께 10주간 '기본생활 습관'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예배, 인사 예절, 식습관, 순종, 자연보호, 질서 등과 같은 매주 주제를 바꿔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정성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받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 날짜 : 9월6일부터 11월8일까지(10주간)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
- 대상 : 유아부(선착순 30명)
- 장소 : 서울교회 7층 706,707호
- 접수 : 서울교회 사무국, 유아부

전국시민양성 - 세계선교대학

생동하는 선교를 위하여...



이영기 장로 (선교위원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7년 9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제6기 세계선교대학을 개강하면서 세계 선교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이제까지 막연하게 선교에 동참하고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매우 유익하고, 알찬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서울교회 세계 선교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공인한 교육과정으로 1학기 10강좌, 2학기 10강좌로 총 20강좌를 이수한 성도들에게 총회의 공인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실제 본 대학 주제별 강사진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저명한 세계선교 관련 신학자 또는 선교사이며 본 대학 전 과정을 통하여 생생한 선교의 비전과 선교지 현장의 상황을 듣고 배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총회 공인 세계 선교대학 수료증을 받은 성도는 15 명이며 그 동안 세계선교대학에 동참하여 1학기과정을 마친 성도들은 163 명에 이릅니다.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세계선교의 현실과 상황을 바로 알고, 비전을 받아 앞으로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온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07 바자를 준비하며...

잡자는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교회 바자는 이웃 사랑 실천과 교회 건축을 위해 1992년에 시작하여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웃 사랑 실천과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를 오는 9월 13일(목)과 14일(금) 양일간 개최합니다.



작년 바자의 경우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농촌 미자립 교회들의 청정 농수산물들의 직거래 판매 수익금 또한 전체 수익금에 24%나 되어 농어촌 교회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 지역 사회에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아 명실공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바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마다 추석 직전에 열리는 우리교회 바자는 지역 주민들도 기다리는 행사가 되어 벌써부터 사무국에 문의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바자위원회에서는 이번 바자에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와 위임 목사님의 저서를 직접 사인 판매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멘 관현악단과 그레이스 핸드 벨 콰이어, 글로리아 중창단과 함께 할 이번 음악회는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이웃을 보다 쉽

고, 보다 친근하게 바자로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바자에서는 모든 매장에서 현금이 아닌 쿠폰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쿠폰은 행사 당일 행사장의 쿠폰 판매대에서 구입하거나 간사실을 통하여 미리 구입할 수 있으며 쿠폰 사용은 바자의 투명성과 전도 목적이거나 이웃에 바자를 미리 알리기 위해 많은 성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므로 사용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쿠폰제 정착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쿠폰은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등이 있으며 이웃에 참여를 권유할 때 사용하거나 전도용 선물로 활용한다면 이번 바자는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증품과 헌물은 참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는 집에서 잡자는 보석들을 깨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2007년 열린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자위원회 홍보부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현재 우리교회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 박승혁 집사(바리톤, 백석대학교 음악학부 겸임교수)의 독창으로 준비된다.

박승혁 집사는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Gottlob Frick 오페라 콩쿨에서 우승한 바 있다.

곡명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와 바하의 칸타타 아리아를 가지고 찬양을 드린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월) 11월에 파송될 선교사 후보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29일(수)~31일(금) 여름휴가를 갖는다.

■ 이사: 은기장 집사 (1교구): 대치동 888 현대아이파크 101-1204 T. 552-4042, 011-752-1228
주영도 집사, 오가연 집사 (12교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83 동원마을 동원로얄듀크@ 103-1105 T. 031-282-0606

■ 득녀: 최봉규 성도, 우보라 성도(12교구)

■ 전시: 오영숙권사 (12교구) 수재화전 9.5(수)~9.8 (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전시실 T. 3408-3114

■ 수상: 김동수 학생(중등부, 김진락 정음순 집사 장남) 8월21일(수) 대한펜싱협회 주최 중별 선수권대회 플뢰레 부분 개인 우승(금메달)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8.26) 에스더전도회 (9.2)

■ 금주의 식사: 교회 제공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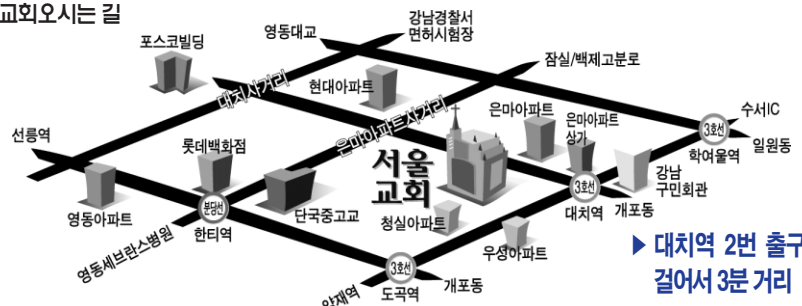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3.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성도들 무사 귀환토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